

# 외교부, 2025년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외교부는 각국의 치안,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,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른 여행경보단계를 2025.12.19.(금) 13:00부로 조정합니다. 이번 조정을 통해 1개국과 2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되고, 2개국과 2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하향 조정됩니다.

## ※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

- 1단계(여행유의) :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·대비
- 2단계(여행자제) : (여행예정자) 불필요한 여행 자제, (체류자) 신변안전 특별유의
- 특별여행주의보 : (여행예정자)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·연기, (체류자) 신변안전 특별유의
- 3단계(철수권고) : (여행예정자) 여행 취소·연기, (체류자)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
- 4단계(여행금지) : (여행예정자) 여행금지 준수, (체류자) 즉시 대피·철수

나이지리아는 무장단체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납치와 공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, 국가안보 최고경계 수준인 적색경보가 발령된 상태임을 감안, 현 2단계(여행자제) 발령 지역 중 케비, 카두나, 코기, 콰라, 나이저, 크로스리버주를 3단계(철수권고)로 상향 조정합니다.

모잠비크에서는 이슬람 테러 세력의 공격이 남플라 주 북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, 남플라 주 일부 지역(에라티, 멤바)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.

나미비아의 경우 치안 및 보건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, 1단계(여행유의) 경보를 발령합니다.

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에서는 전반적인 치안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, △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단계(여행자제)로 하향하며, △보츠와나는 현 2단계(여행자제)에서 1단계(여행유의)로 하향 조정합니다.

※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 12.11.(목) 해제되어 2단계로 조정

△볼리비아 코차밤바 주 및 △튀르키예 9개주(시리아 및 이라크 국경 10km 이내 지역 제외)는 치안이 안정화됨에 따라, 여행경보를 현 3단계에서 2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합니다.

세네갈, 엘살바도르, 탄자니아 전역 및 러시아, 중국,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는 90일간 연장됩니다. 네팔 일부 지역(바그마티, 룸비니, 간다키 주)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도 지난 12.11.(목) 연장된 바 있습니다.

외교부는 앞으로도 전세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 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붙임 : 2025년 하반기 여행정보단계 정기조정 결과 및 조정 전후 지도. 끝.

담당 부서	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	책임자	과 장	김동윤 (02-2100-8201)
		담당자	행정관	최명주 (02-2100-8206)

# 붙임 2025년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결과

## □ 조정 결과

구분	현행	조정	대상 국가
상향 (3)	-	1단계	나미비아
	2단계	특별여행주의보	모잠비크(남플라 주-에라티 구, 엠바 구)
	2단계	3단계	나이지리아(케비, 카두나, 코기, 콰라, 나이저, 크로스리버 주)
하향 (4)	3단계	2단계	튀르키예(킬리스, 가지안텝, 산르우르파, 마르딘, 엘라지, 툰젤리, 디야르바르크, 비트리스, 반 주) * 튀르키예-시리아-이라크 국경 10km 이내는 3단계 유지
	3단계	2단계	볼리비아(코차밤바 주)
	특별여행주의보	2단계	남아프리카공화국
	2단계	1단계	보츠와나

### ※ 특별여행주의보

- 기존 발령 연장 : 러시아(3·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), 콩고민주공화국(3·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), 중국(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), 세네갈, 엘살바도르, 탄자니아, 네팔
-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: 남아프리카공화국, 마다가스카르

### ※ 여행경보 단계

- 1단계(여행유의)
- 2단계(여행자제)
- 특별여행주의보(2.5단계 해당)
- 3단계(출국권고)
- 4단계(여행금지)